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 집회는 동회로 모입니다.

속회가 개학합니다. 이번 주 18일(금)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연합속회로 모입니다. 예배인도 : 인도자, 식사준비 : 속장

오늘 예배 중에 2011년 교회학교 교사를 임명합니다.

아동부 겨울 수련회가 19일(토)과 20일(일) 1박 2일로 포천 영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다음주 선교회 모임은 옷놀이로 모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한번은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서 용기를 줍니다.

- \* 식 당 봉 사 : 안정숙 진정숙 최희영 조병주 박경원 남창모 이소순
- \* 2/27, 3/6식당봉사 : 박홍재 차혜심 정연희 한상경 김현주 이광욱 정복순
- \* 설 거 지 봉 사 : 김종락 박영신 장성호 주경진 이윤진
- \* 다음 주 설거지 : 이국노 김민화 이주현 박시내 최은미

교육부장 및 교장 : 김인걸

유아 유치부 : 박소진 최희영 최문희 김태환

아 동 부 : 곽권희 권미정 이근화 오재환 윤 윤 박영실 조지연 리 봄  
방 준 이성경 안 현

중 고 등 부 : 황경순 장성호 한대훈 신진식 이정은

청 년 부 : 김경연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주현절 제6주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32(통48). 만유의 주재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생명의 주 하나님, 환한 빛으로 우리를 맞아 주시는 큰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팎의 어둠으로 얼룩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빛 안에 머무는 이 시간, 예배의 기쁨으로 환하게 밝아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본받는 일에는 너무나 소극적이지 않았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함께 깊어지고 나갈 책임 앞에서 홀로 뒷걸음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사랑을 돌아봅니다. 눈앞의 현실만 관망하면서 불만과 불평의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소망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헛된 우상과 여러 가지 핑계로부터 건져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멋진 신앙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마5:9,10 ..... 인도자

♣ 교 독 문 ..... 53. 시편121편 ..... 다함께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대표기도 ..... 장영숙전도사

응 답 송 ..... 찬양대

찬 양 ..... 218(통369).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 다함께

♣ 성경봉독 ..... I. 눅 12:15-21 ..... 권미정 집사  
 ..... II. 살전1:5-10 ..... 하정석 집사

봉독자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찬 양 ..... 찬양대

말 씬 ..... I. 그가 가지지 못한 것 ..... 손성현전도사  
 ..... II. 이야기가 있는 신앙생활 .....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 다함께

## · 헌금영수기 ·

### 십일조헌금:

김재흥 최희영 이성운 김성한 조영순 김일량 이은옥 김정길 최숙화  
 김훈동 유경순 박시내 박창운 허정운 서원금 안종일 정현주 이한림  
 김명희 임창선 장대호 한숙경 최종훈 김금하 한상경 정연희 곽새롬  
 강인식 김정숙 광다윗 광다빈 강미선 오진훈 노순옥 한대훈 박소진  
 손민아 손민호

### 월정헌금:

고속이 권 순 윤정화 권혁순 박혜경 김명순 이교영 김문주 김영순  
 김용태 박정숙 김종문 지면주 김종철 고영애 문금석 박범희 박미영  
 박상규 박인혁 유상진 유은정 이동천 이봉배 장재영 김재영 정두리  
 조순덕 김성은 장동훈 정은선 김주영 이건식 신영신 김신옥 이지훈  
 김현영 정원석

### 감사헌금:

이한림 김명희 김명순 허정호 배삼순 정복순 한성건 조문규 진정숙  
 조현권 박아영 심정아 배근수 김금순 김중수 이순정 전 용 박창운  
 허정운 한지혜 황경순 김지호 전해리 박선미 박준희 이기분 김용진  
 박효선 양재민 안보혜 장묘심 무명

녹색꿈헌금: 김재흥 장원호 박성희

생일감사헌금: 정두리 신영신 김종철

	장혜숙	백혜숙		
	노순옥	정경례		
	임정자	최경미		
	문영혜	이명희		
	안정숙	진정숙		
	박홍재	곽권희		
	박효선	허정운		
	이순정	김금순	심	연합속회
	이형숙	권미숙		
	안홍숙	오현정		
	정영선	이현숙		
	이영란	박미영		
	박혜경	조항미		
	김재흥	오자영		
	김기석	이건식		

# 2월

이문재

밤새 폭설

치약은 얼어 있고

살아온 날들 쫓아보는

산중 신새벽

윗목에 들여놓은 구두

아직 젖어 있는데

눈냄새 싸아하게 밀려온다

우지끈!

제가 인 눈을 못 이긴

낙락장송 한 채

무너진다

그때 나는

나에게 지극해야 했다

찬 양 ..... 516(통265).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 다함께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자신의 이야기가 주님의 이야기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살피며 사십시오. 자주 듣고 싶은 이야기, 기쁨과 희망의 이야기를 만들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세상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와 자신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 속에 간혀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삶이지만 주님을 닮아가려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이야기를 담아내려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함께

♣ 축 복 .....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해경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에스라·느헤미야서/ 김재흥 목사 기도 : 박홍재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손성현 전도사	공동기도	박소진 선생
	김기석 목사	조병무 장로	박시내 집사

2월	영접위원	한상익 하현철 박범희 고숙이 최성애 박미영
	헌금위원	한완식 문영혜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청빈의 사도 승송 乘松

추운 어느 날이었다. 우리는 방화수류정 옆길을 지나서 북으로 송림이 우거진 산언덕을 향하여 나갔다. 그 전날 저녁에 용산 계성중학의 임부남 선생이 나를 찾아오셔서 수원에 묻힌 노리마쓰 마사야스乘松雅休 선생의 무덤에 순례해 보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즐겁게 승낙하고 누구보다도 승송 선생의 내력을 잘 아시고 또 선생의 감화를 많이 받으신 신현익 의사를 모시고 수원 삼일학교 교장 김병호 선생과 함께 네 사람이 한 패가 되어 승송 선생의 산소를 순례하기로 하였던 것이었다.

북문 밖 농업학교를 지나 얼마 가지 않으면 산록을 싸고도는 큰길가에 첫 주막이 있고 그 주막에서 왼쪽으로 바라보면 바로 눈앞에 그의 산소가 있다. 우리는 논 언덕을 지나 작은 개울을 건너서 승송 선생이 묻혀있는 무덤 앞에 이르렀다. 그리고 한참동안이나 머리를 숙이고 말없이 그 앞에서 있었다. 날은 살을 에듯 추웠다. 소나무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소리가 은근히 그러나 엄숙하게 들렸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이미 오래다. 그러나 그의 생각, 그의 정성, 그의 뜻은 아직도 많은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참 돌맹이가 말을 할 리 없고 마른 잔지가 우리를 반길 리 없건만 선생이 가지셨던 그 마음이 너무나 그리웠고, 그가 거니신 일생이 너무나 놀라운 이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를 사모하고 그를 따르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 그의 산소를 찾아온 것이었다. ...

우리는 이렇게 아무런 형식도 순서도 없이 각기 제멋대로 간단한 순례를 마치고 산을 내려 큰길에 나갔다. 하루에도 몇 백 명의 참배자들이 모여드는 유럽이나 영국의 유명한 사원들이 연상되었다. 장엄한 건축과 조각으로 단장하고 병자와 상인들로 번잡한 그들의 것에 비하여 얼마나 쓸쓸하고 단아한가? 그러나 여기에 동양의 정취가 있다. 신앙의 감회가 있다. 나는 다시 고개를 돌이켜 선생의 무덤을 바라보았다. 푸른 소나무가 병풍과 같이 말없이 둘러싸고 있다. 하늘은 젖빛과 같아서 지금이라도 눈이 내릴 것 같다. 솔개가 날개를 펴고 유유히 동쪽 하늘에 나르고 있다. 우리는 한 걸음 두 걸음 발을 옮겨놓으면서 승송 선생의 이야기를 들었다.

승송 선생이 조선에 들어오게 된 동기는 자기가 일찍이 사귀었던 조선 청년 한 사람이 그리스도 신자라고 하여서 박해를 받아 순교하였다는 눈물겨운 소

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되어 자기 자신도 조선에 나와서 이 생명의 종교를 전파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그가 배를 타고 인천에 상륙하였을 때에 처음부터 말이 통하지 않아서 고생을 했다. 그가 처음으로 배운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었다. 그가 인천에서 서울까지 걸어오면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나마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하나님”, “하나님”하고 전도하였다고 한다. 그가 서울에 있으면서 차차 조선말도 배웠고, 임의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의 경제생활은 말할 수 없이 곤란하였다. 그는 당시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인 프린틴이 경성에 체류하고 있을 때, 그 집 문간방을 빌려가지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신다”는 가장 단순한 신앙을 가졌고, 그날그날을 지냈다. 실로 그에게는 범인이 상상할 수도 없으리만치 지나치는 생의 끈고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는 신앙을 인하여 그 끈고를 자취한 것이었고, 또 그의 단순하나마 힘 있는 신념을 가지고 이 끈고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다. ...

“선생은 그 후 여러 십년 동안을 이 작은 오막살이에서 사시면서 날마다 근방 촌락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그의 집은 언제나 시골에서 오는 손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러나 승송 선생이나 승송 부인이나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힘을 다하여 그들을 접대하였다. 한 번은 양식이 떨어져서 쌀이 모두 한 홉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골 손님들이 잔뜩 와서 이틀 사흘을 먹고도 돌아가지 않아서 승송 부인이 이웃집에 돌아다니면서 파를 얻어다가 파국을 끓여서 대접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한 번은 승송 부인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궁이 앞에서 소나무 잎을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떼서 불을 때고 있었다. 나뭇가지를 꺾으면 그 소리에 방에서 자는 손님들이 잠을 깰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몇 가지 일화로만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계급과 처지를 돌아보지 않고 조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끈고를 달게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수원을 근거하고 복음을 전하였다. 그의 무기는 사랑이었고, 그의 방법은 열성이었고, 그의 생활은 끈고였다. ...

우리는 승송 선생이 사시던 그 집을 떠났다. 문간을 나섰을 때에 임선생은 이러한 말을 하였다. “고향을 떠나 외지에 가는 사람에게는 제일 상급 인물과 하급 인물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데, 승송 선생과 같은 이는 분명히 제일 상류계급의 인물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추위를 잊고 그의 감추어있는 일생을 머리에 그려보았다. 그는 아직도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선생의 생애는 세속에 물들고 쾌락주의에 마비되어 있는 나의 심령에 큰 충동을 주었다.